

충북지회 충주출장소, 안전지원제



▲ 2006년 2. 23일 충북지회 충주출장소는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지원 등반대회를 대전지방 노동청 충주지청장, 산업안전과장과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남산에서 개최하였다.

Safety Pictures

부산지회, 2006년 운영위원 및 대의원 특별회의 개최



▲ 2006. 3. 14 부산지회는 운영위원 및 대의원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기술국 김성철국장을 특별 강사로 초빙하여 안전협회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현판식



- ▲ 2006. 3. 2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복지공단 윤재인 동부지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정규중 서울지회장, 대신직업전문학교 이석진 학교장, 영재직업전문학교 이충기 학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을 거행하였다.

안전협회, 울산 현대중공업 맞춤(참여식)교육 실시



- ▲ 2006. 2. 28 ~ 4. 6일, 안전협회는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2,080여명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맞춤(참여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동영상 활용하여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에 대해 조별 토론 진행으로 교육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육효과를 증대시켰다.

한국안전학회, 2006년 제2차 이사회 개최



- ▲ 2006. 3. 3일 한국안전학회는 호서대학교 서울캠퍼스 3층 회의실에서 200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전정책 개발위원회 구성, 화재안전, 교통안전, 해상안전, 항공안전, 철도안전, 스포츠안전, 보안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한 공동 사업 추진 등 2006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Safety Pictures

노동부, 지역·현장 중심으로 조직 혁신

노동부가 출범 25주년을 맞아 “제2의 노동부”라는 기치하에 재도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근로감독 시스템 혁신”과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지방관서 조직이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해 지방관서 직원들을 주축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시한 전면적인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체계적인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과를 『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 2과 체제로 개편한다. “노사지원과”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과”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6개 지방청 및 17개 주요 권역별 종합고용안정센터(총23개)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가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지원과』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각종 고용안정사업, 노사관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등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인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행정 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 관하여 「직업훈련-취업지원-실업급여」원스톱 서비스를 시스템화하였다. 지방관서 명칭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방노동청○○지청’으로 변경하여 본부에 집중된 사업권한을 광역단위 중심의 지방노동청과 지방관서로 분권화시키고 지역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